

배포 일시	2022. 9. 19.(월)		
담당 부서	철도국	책임자	과 장 조성균 (044-201-4600)
< 총괄 >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송재영 (044-201-4617)
보도일시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철도경찰, 고속열차 내 캐리어 절도범 검거

- 서울·부산역에서 출발대기 중인 고속열차에 들어가 캐리어 슬쩍 -

-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고속열차 객차 통로에 놓여진 캐리어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(남, 40대)와 B씨(남, 50대)를 9.7(수), 9.12(월) 각각 검거하였다고 밝혔다.
 -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에서 9차례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, B씨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역에서 9차례에 걸쳐 1,8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.
- A씨와 B씨는 여객을 가장하여 출발대기 중인 고속열차에 탑승한 이후, 여객들이 짐칸에 캐리어를 놓아두고 객실로 들어간 사이를 악용하여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캐리어를 들고 내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-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“최근 3년간 고속열차 내에서 발생한 캐리어 절도 사건은 연평균 12건이었으나, 올해는 8월까지만 21건으로 급증하였다.”면서
 - * 최근 3년간 고속열차 내 캐리어 절도 사건 : '19년 14건, '20년 11건, '21년 11건
 - “A씨와 B씨에 대해 추가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 총괄 >	철도국	책임자	과 장	조성균	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송재영	(044-201-4617)
담당 부서	철도특별사법경찰대	책임자	과 장	김영재	(042-615-5863)
	기획과	담당자	계 장	김학년	(042-615-5867)



참 고

절취한 캐리어 사진

